

# 도교육청, 5급 승진자 17명 선발 예정

### 올해부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현장평가 도입... 명부 20%+ 역량평가 80% 반영

전북도교육청은 10일 오후 전주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5급 승진심사 대상자(6급)가 참석한 가운데 5급 승진심사 운영계획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교육행정 45명, 시설 7명, 공업 7명 등 승진심사 대상자 59명이 참석했으며,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17명(교육행정 15명, 시설 1명, 공업 1명)을 선발해 내년 1월 이후 승진 임용할 예정이다.

5급 승진심사 운영 계획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20%와 역량평가 80%를 반영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역량평가는 관리자로서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서 작성(40%)을 통해 업무 기획과 문제인식·해결 능력을 살펴보고, 심층면접(집단토론·개별면접 30%)을 통해 국민중심적 사고와 의사소통, 조정통합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특히, 올해 최초로 도입되는 현장평가(10%)는 심사대상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리더십을 검증하게 된다.

보고서 작성은 직무·사회활동 과정에서 습득 가능한 일반적인 주제 또는 사회 일반 분야에서 제시된 기본 자료

를 보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조직 상황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심층면접은 집단토론면접(60분)과 개별면접(20분 내외) 등 2단계로 진행되는데, 집단토론면접은 3~4명이 무작위로 조를 이뤄 공통의 해결과제에 대한 토론을 거친 뒤 공통의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하며, 개별면접은 6급 재직 기간 중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근무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도입되는 현장평가는 6급 재직

기간 중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진행되며, 구성원과의 소통 및 협력정도, 청렴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한편 심사대상자의 6급 재직기간 중 업무수행 실적, 청렴도, 구성원과의 협력 정도 등을 검증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간 온라인 공개검증을 실시한다.

역량평가까지 모두 마치면 역량평가 단장인 부교육감이 승진심사를 위한 최종 평가 결과를 작성하게 되는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점수와 역량평가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이 결과는 인사위원회에 승진심사자료로 제공돼 승진결정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정은성 기자

## 열악한 상황 이겨낸 값진 승리

### 전교생 12명 보절중, 교육감배 배드민턴대회 우승

보절중학교는 지난 8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2019 전라북도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배드민턴대회에서 익산 용안중학교를 2:1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교생 12명의 농어촌 소규모학교인 보절중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전교생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배드민턴 방과후활동 프로그램과 토요스포츠 시간을 활용해 전교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배드민턴활동이 이뤄지도록 지도했다.

보절중학교 강당은 천장 높이가

낮아 배드민턴 활동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높이 적음 연습(하이클리어)을 하고 대회출전에 나서는 등 열악한 상황을 이겨낸 우승이라 더욱 값졌다.

보절중학교 공강남 체육교사는 "시골학교 학생들에게 위촉되지 말고 자신감 있게 경기하라고 말은 했지만 대회에 출전한 학생들이 이 정도로 시합을 잘 해서 우승할 줄은 몰랐다"며 "함께 노력해 준 아이들이 너무 고맙고 대견하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당당한 공직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 도교육청,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

전북도교육청은 10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19년 9월 16일자 신규 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장을 받은 신규 임용공무원은 교육행정 59명·사서 3명·시설 1명·공업 5명·운전 9명 등 총 77명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신규임용 공무원 77명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악수하며 첫 출발을 축하했다.

전북도교육청의 신규 공무 임용장 수여식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축하하는 자리로, 부모·배우자·친지 등이 공무원증을 직접 목에 걸어주면서

의미를 더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신규 공무원에 임용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 순간은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순간이니 마음껏 기뻐하시라"면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삶이 빛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전북교육의 삶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가족들에게는 "자녀들을 잘 키워서 전북교육청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그 정성과 마음 잊지 않겠다"면서 "당당한 공직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10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19년 9월 16일자 신규 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 청소년 정신건강관리 내실 다진다

### 도교육청, 위기학생 지원 강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0일 오후 전주 동암고 시청각실에서 위기학생 발생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해당지역 위(Wee)센터 실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했다.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대응력을 강화하고 위기학생의 성장과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예수병원 김태형 교수의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김계교육지원청 김셋별 전문상담사의 '마음 면역력 향상 프로그램'

▲위기학생 지원방안 안내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자살예방교육 및 정서행동발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장 연수 및 학생 자살예방 뉴스레터, 교육자료를 매월 안내해왔다.

지난 4월에는 도내 758개교를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4개 교육지원청이 지역별 시후지원협의체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심군 학생의 사후 관리에 내실화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학교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위기 학생 발생을 예방하고, 위기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추석 연휴기간 교내 주차 무료 개방

### 12일 자정부터 15일 24시까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추석맞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및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연휴 기간 교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개방 기간은 9월 12일 자정부터 9월 15일 24시까지며, 정문 등 대학 내 통제소를 모두 개방해 도민 및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편, 전북대는 매년 명절 등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거점 국립대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한국어 연수생, 함양산삼축제서 문화체험 '큰 호응'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에서 공부하는 한국어 연수생들이 지난 9일 경남 함양군에서 열린 제16회 함양산삼 축제에 참여해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함양산삼축제위원회의 지원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는 한국어 연수생 중 참가를 희망한 50여명이 참가해 산삼 캐기 체험을 비롯해 함양의 명소인 정여창 고택과 남계서원을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탐방했다.

특히 이들은 현지 산삼 농가의 산에 직접 올라가 산양삼과 산약초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직접 캐보는 체험을 통해 산삼의 의미를 알고, 잊혀져가는 삼마의 역사적 가치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랑스에서 온 미라오위 소피안 학생은 "멋진 자연환경을 가진 함양을 방문하여 산삼 캐기 체험 기회를 가져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한국의 유명한 도시 외에도 여행할 곳이 많은 한국을 구석구석 누비며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에서 공부하는 한국어 연수생들이 지난 9일 경남 함양군에서 열린 제16회 함양산삼축제에 참여해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도교육청,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전북도교육청은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사회복지시설 32곳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 추석에도 쌀·화장지·김·쌀국수 등 1,56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청사관리, 운전, 청소·경비 등 도교육청 현장근무자들에게도 격려품을 전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도교육청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큰 용기를 주고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